

##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 목포스마일센터 개소

옛 목포경찰서 일부 리모델링  
피해자·가족 ‘안전 울타리’ 역할  
심리치료실 등 갖춘 통합 지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기관인 목포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해동 옛 목포경찰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 박정수 목포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목포스마일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상담실과 심리치료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생활관 등을 갖춘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다.

이 곳에서는 전남지역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트라우

마를 치유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이 돼줄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

전남은 범죄 예방에 취약한 섬과 산간 지역이 많지만 그 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전담 기관이 없어 광주스마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스마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예산반영에 힘을 쏟은 결과 이번에 전국에서 16번째로 스마일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옛 목포경찰서 부지는 목포경찰서가 지난 2017년 9월 유달경기장 인근 신축 정사로 이전함에 따라 빈 건물로 방치됐다.

목포시와 전남도는 이 곳에 스마일센터를 비롯해 통일부 호남권통일+센터, 여성가족부 전남청소년지원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을 유치했다. 호남권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노후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종식 시장은 “스마일센터가 개소하고, 호남권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까지 앞

으로 문을 열면 공공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등 유동인구까지 늘어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

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 전남대병원, 3년 연속 최고의 병원 선정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최고의 병원(월드 베스트 호스피탈 2021)’에 지방국립대병원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뉴스위크지가 독일의 소비자 데이터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공동으로 실시한 월드 베스트 호스피탈 평가조사에서 84.53%를 획득해 전국 국립대병원 2위, 지방국립대병원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은 첫 평가가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순위에 진입했다.

뉴스위크와 스타티스타는 공신력 있는 순위 선정을 위해 병원 근무자들의 추천, 환자들의 경험, 의료관련 지표의 세 가지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7만4000명 이상의 현직 의사와 병원 당직자,

건강센터 전문가들이 포함된 온라인 국제 설문조사가 반영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측정조사, 환자 안전·위생 상태, 치료의 질적수준 등이 측정됐다.

이번 평가 1위는 97.62%의 서울아산병원이 차지했으며, 2위 서울대병원(95.65%), 3위 삼성서울병원(92.73%), 4위 세브란스병원(91.54%), 5위 분당서울대병원(88.86%)이었다.

이어 6위는 서울성모병원(88.00%), 7위 고대안암병원(86.35%), 8위 아주대병원(85.64%), 9위 경희대병원(85.55%) 10위 강남세브란스병원(85.53%), 11위 중앙대병원(85.21%), 12위 강북삼성병원(85.15%), 13위 여의도성모병원(84.90%) 순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사립대병원 포함해 14위이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세계적 인문매체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전남대병원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최고수준의 삼급종합병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 광주 올해만 전화사기 피해 41억 원 “저금리대출 전화 주의”

광주경찰, 지난해 1·2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 2배 늘어

최근 광주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52건이다. 피해 금액은 4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8건(피해 금액 18억2000만 원) 대비 발생 건수가 18.8%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로는 ‘저금리 대출 상품 알선’이 89.4%(136건)로 가장 많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저금리 대출 상품 전환’을 미끼로 보증금·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에 사는 피해자 A·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한 수금책을 만나 약 4800만 원을 건넸다 뒤늦게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았다.

지난 1월엔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일대를 돌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건네 받아 조직에 송금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저금리 대출 상품 알선’ 89.4% 최다 전환 미끼 보증금·수수료 요구 수법 ‘기관 사칭형’ 자금 안전 보관 명목**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수거책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6건은 ‘기관 사칭형’이었다. 수사 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지난달 23일과 26일, 광주 광산구에 사는 C·D씨도 경찰·검찰을 사칭한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 사기를 당했다.

C·D씨는 일당으로부터 “계좌가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계좌에 든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실내 특정 장소에 두면 경찰관이 방문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일당의 안내대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주택 우편함에 보관했다. 조직원은 우편함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광주 지역 전화금융사기 최근 3년 간 범죄 건수는 ▲2018년 205건(피해 금액 37억7000만 원) ▲2019년 336건(피해 금액 37억7000만 원) ▲2020년 715건(피해 금액 157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올해 1·2월에만 총 72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07건 ▲2019년 610건 ▲2020년 408건에 달한다.

최윤희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로 인하여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